

전도법

작성일 : 2010. 9. 18 (토) 새벽 1시

작성자 : 주은혜 (부산 주 향기로운 교회)

[철야 중,
예수님께서 코치해주신 대로 전도한 것을 말씀드리
며
예전에 전도하지 못한 것과
주님의 마음을 참 몰랐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노방을 나가보니 주님을 좋아하는 자보다
주님을 모르거나 싫어하는 자들이 더 많아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슬피 울며 “주님, 전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술도 능력도 없으니
뜻이 있는 자도 놓치게 될 것 같아요.”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전도해서 참 기쁘다. 내가 전도법을 가르쳐
주마.’
말씀해 주셔서 받아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도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전도를 함으로써
구원과 가까워지며
나의 삶과 가까워지며
나의 심정과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섭리사, 전도를 두려워하는 자 있느냐.
전도의 두려움에 갇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죽어가는 자에게 손을 내밀 수도,
구할 수도 없게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전도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며,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전도는 오직 사랑을 전하는 것이니
두려워 말아라.
대중 앞에, 사람 앞에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이 생겨서
진심을 상대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

전도를 의무감만으로 하면 안 된다.
먼저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무감, 책임감도 있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늘 사랑과 형제 사랑이니
이것이 전도를 위한 필수 조건이요,
너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너희가 전도할 때
나를 사랑하여 외친다면
그 목소리에 능력이 실릴 것이며,
나를 사랑하여 증거한다면
그 말로 인해 상대의 마음이 감동이 될 것이다.
그러하니 먼저는 사랑을 갖추어라.

전도도 조건이다.
기도만 조건인 줄 아느냐.
기도도 계속하다 보면
응답을 받는 기도,
불이 떨어지는 기도,
나를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진정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처럼,
전도도 꾸준히 하면 할수록
나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
수천 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너희의 선생이 그 증인이 아니냐.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처음부터 세상에 있는 희귀종들, 맛있는 자들을
섭리사로 이끌 수 있는 줄 아느냐.
처음부터는 힘들다.

전도는 마치 낚시와 같아서
멋있는 자, 데려오고 싶은 자가 있더라도
그를 전도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고 경험도 있어야 하며
나의 역사도 있어야 한다.
전도는 나의 책임분담,
너희의 책임분담,

전도되는 자의 책임분담이
각각 어우러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니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기술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게 되어
세상 바다에 있는 인어 같은 자들
섭리에 옮겨놓을 수 있으니
꾸준히 해야 한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이성문제, 이단문제 일어나서 안 된다고 안하면
결국 네 손해,
섭리사 손해,
하늘 손해가 아니냐.
너희가 돈을 버는 일이라면 그리 쉽게 포기하였겠
느냐.
너희가 매일 매일 인생을 살 듯
전도도 꾸준히 해야 한다.
그 조건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감동시키는 꾸준함이 되어야
생명도 감동받고 돌아오는 것이다.

세상에 멋있는 자, 뜻있는 자,
내가 진정 데려오고자 하는 자 너무 많다.
하지만 나의 육신이 되어
그 생명들 데려올 자들이 적구나.
나의 뜻이 있다 하여도
전도될 자가 제대로 마음으로 새겨들지 않고
깊이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근본의 마음이 흐려져 있으면
전도하기가 힘들다.
이는 마치 삼위의 뜻이 있었던 요시야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옥에 간 것과 같은 이치
다.
그러니 나의 뜻이 있다는 감동이 왔어도,
그 생명이 섭리사로 옮겨 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며
세밀하고,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데려와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가 너의 조건이 되어
더욱 멋있는 인생 작품들을
섭리사 가운데 세울 수 있을 것이니
두려워 말고 행하여라.

전도를 해야 한다.
바로 나를 전하든지,
섭리 문화를 통해 나를 전하든지,
선생을 증거하며 나를 증거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전도해야 한다.
하나의 그물에는 많은 물고기가
걸려들지 않는다.

다양하게 하여 지혜롭게 전도하라.
연구해야 한다.
또한 책임감있게 전도해야 한다.
진정 책임감으로 하지 않으면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되니
생명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늘 책임감있게 꾸준히 행해야 하는 것이다.

생명을 만날 때
상대를 충분히 파악하여 그에 맞게 대해야 한다.
사랑하는 섭리사야.
너희 앞에, 너희 각각에게
선생이 나타났다고 하자.
그리하면 어찌 대하겠느냐.
진정 사랑으로
친절히,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겠느냐.
그렇듯 신입생들,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을 대해주
어라.

그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며
비밀 된 이야기를 하면
알아야 하는 지도자들만 알고
그 비밀을 지켜주고
섭리사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선생이 알아야 할 일은
꼭 선생이 알도록 하고 행해야 한다.

전도하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
먼저는 기도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신입생을 만나 마음을 풀어주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신입생의 문제를 풀어주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어라.

이성문제, 또한 이단 시비…….

마지막 결정하는 것은 신입생이니
기도 많이 해주고 말씀도 잘 전해주며
코치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절대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아라.
사탄을 스스로가 물리쳐야
다음에 같은 힘들이 와도 넘을 수 있다.

섭리역사

선생과 월명동을 빼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선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섭리인이 아니요,
선생을 빼놓는 교회는 섭리 교회가 아니니
교역자들, 지도자들은
선생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연구하라.
너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말하는 태도에 따라
선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관이 달라지니
너희는 어떻게 선생을 증거할지 늘 생각하라.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르다.
부모가 없는 자에게는 내가 부모가 되어준다 하고
인생의 앞날이 막막하다고 하는 자에게는
내가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하며
인생이 곤고하다 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답을 가진 나 예수를 만나보라 하라.
성공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나를 만나 인생을 성공한 자들을 증거해 주며
나를 증거하면 된다.
또한 선생을 당당하게 증거하라.
선생을 증거하는 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요,
선생에 대해 잘 모르면
섭리사에 뿌리 내리기도 힘드니
선생에 대해 확실히 증거하라.

나에 대해, 선생에 대해
강하게 증거해야 할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지만 나에 대해 말하거나
선생에 대해 말해야 할 그대에
너희가 꺼리거나 불편해 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기 바란다.
너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신입생들도 자연스럽게 여긴다.
사람은 문화 따라 가기 때문이다.

너희는 신입생을 너무 강제로 대하지는 말되,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강하게 말씀해 주고 이끌어 주어라.
기도가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각자 생명전도의 그물을 만들어라.
각자의 개성에 합당한 전도를 하길 바란다.

꾸준히 하면 정녕코 된다.
세상에 모든 성공한 자들을 보아라.
어찌 성공한지 아느냐.
그들은 꾸준히 '지금도' 행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망친 자들은 왜 인생을 망치는지 아느냐.
그들은 너무 이른 시기에
인생을 꾸준하지 못함으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섭리사 모두가 전도의 성공자들이 되길 바란다.

전도는 마음으로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욕으로 행하고 부딪히고 이루는 것이
바로 전도이다.
찾고 두드리는 것이 전도이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전도이고
너희를 성장시키는 것이 전도이다.
그러니 섭리사 전체가
전도의 재미를 느껴보길 바란다.

상대가 뜻이 있어도
너희가 기술이 없으면 생명을 놓치니
너희가 기술과 능력을 갖추어 놓도록 하라.
사랑들아, 해보아라.
역사가 일어난다.
하지만 절대 비약은 없다.
나는 꾸준히 이 역사를 펼쳐왔고
섭리사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듯이,
너희의 전도의 능력과 힘도
차근차근 생길 것이니 꾸준히 하도록 하라.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는 한
꾸준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상대를 위해 하자.
도전하고 이루고 성장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결국 이루는 자들이 되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당부하겠다.
순수한 사랑만이 생명을 살린다.
끊임없는 사랑, 삼위를 닮은 사랑만이 생명을 살린다.
또한 생명이 나를 향해야만
나로 인해 살 수 있으니
너희는 그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행하여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면 되는 것이다.
생명이 섭리사 싫다 하고 가 버리면
더 큰 자 다시 전도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늘 너희를 희망으로 지켜본다.
섭리사 뜨거운 생명의 표적을 일으키자.
사랑한다.
진정 뜨거운 사랑이다.

너희와 함께 생명의 표적을 일으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